



웃음꽃 속에서 피어나는 무재해 일터

-KT대구지사-



▲ 김 덕 곤 지사장

「**꿈** 질로 고객만족! 마음으로 고객감동!」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꿈** 최고의 통신품질로, 최고의 서비스로 고객을 사로잡는 곳이 있다. 「인정받고 부러움받는 대구지사」라는 꿈을 향해 전직원이 한 마음 한뜻으로 전진하는 KT대구지사이다.

KT대구지사는 대구광역시의 중구, 서구, 남구 등을 비롯하여 경북의 왜관, 고령지역 등의 전화와 초고속 인터넷 등 통신 상품의 개통 및 설비 유지보수, AS 등을 담당하고 있다.

「인정받고 부러움받는 대구지사」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그 꿈을 실현시키기 위한 실행계획 5가지가 눈에 띈다. ① 고객가치(CVA) 향상을 통한 고객만족경영 ② 기본통신시설의 품질경쟁력 향상 : 맞춤 AS 실현 ③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 열린 경영 실천 ④ 경영품질 대상의 도전 ⑤ 안전관리 철저 가 그것인데, 보다 업그레이드되고 발전하는 회사가 되기 위해 안전도 어깨를 나란히 겨룬 것이다.

이는 작업중 일어날 수 있는 사고로 인한 사원들의 사기 문제에 초



점을 맞춘 것으로, 그로 인한 사원 가치의 하락은 결과적으로 고객 가치에 악영향을 미치므로 안전과 경영을 각각의 것이 아닌 함께하는 동반자적 개념으로 본 것이다.

■ 산업재해 예방활동으로 이룩한 무재해 15배수

꾸준하고 체계적인 산업안전보건활동을 통해 통신업계 최초로 무재해 15배수를 달성한 이곳은 이뿐만 아니라 2004년 KT 안전대상 최우수기관상을 수상하는 등 안전에 관한 한 Top이라고 자부한다.

무엇보다 재해의 예방활동을 중요시하여 안전보건관리 프로그램을 체계화하였다.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에는 평소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조치하고, 각종 설비 및 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며, 해빙기·우기·동절기 등 계절적 특성에 따른 재해예방을 위한 특별 안전점검과 교육, 방심으로 야기될 수 있는 명절 연휴 순찰 등 놓칠 수 있는 작은 부분까지 신경쓴다. 또한 현장 요원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

이외에도 KT 대구지사는 선로분야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5C 운동의 정착으로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일터로 나아가겠다는 계획이다.



■ 함께하는 노사문화, 이룩되는 안전일터

KT 대구지사에 오면 팬시리 얼굴에 미소가 번진다. 이곳 식구들 모두의 얼굴에 웃음꽃이 가득하기 때문이다.

직원이라는, 근로자라는 단어가 주는 거리감이 싫어 동료사원이라고 얘기한다는 김덕곤 지사장은 안전과 함께 신바람나는 직장 만들기에 심혈을 기울인다.

웃으면서 일할 수 있는 직장에서만 사원 스스로 안전을 지키고 술선수범하여 무재해가 이룩된다는 것이다. 이에 수시로 현장을 돌아보고 격려하며 사원으로 하여금 용기를 북돋는다. 생계수단을 위한 일터가 아닌 자아를 실현하고 함께 발전하는 곳으로 만들기 위함이다.

특히, KT 인재개발원에서 운영하는 사이버교육을 통하여 직무에 맞는 교육을 실시·이수케하여 전문적인 업무수행과 능력향상을 도모한다.



■ 이웃과 함께하는 KT 대구지사






웃음과 사랑이 가득한 KT대구지사는 그 사랑을 혼자서 독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함께한다.

지난 11월 1일에는 사원들에게 옷을 거둬 총 886점의 옷을 몽골의 한인에게 전달하는가 하면, 사랑의 봉사단이라는 사내 모임에서는 독거노인을 위한 생일잔치 및 집수리 등이웃사랑의 정을 실천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보면 보잘것 없을지 모르지만 그들이 모여 전달된 이웃사랑은 더없이 크고 소중한 것이었다.

자칫 삭막하고 이기적이 될 수 있는 이 시대에, 혼자서 살아가는 독불장군 이 아닌 '나' 나 '너' 라는 말 대신 '우리' 라는 말로 모두가 함께하는 상생의 길을 걷는 것이다.

이러한 사랑과 관심이 밀거름되어 이룩한 무재해 15배수 달성은 KT대구지사 모든 식구들이 흘린 땀방울의 결과이며, 그러한 노력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 생활화된 안전으로 거듭날 것이다.

꿈을 먹고 사는 이와 그렇지 않은 이는 분명 다르다. 밑거름은 무재해 20배를, 작게는 나의 행복, 가정의 행복, 직장의 행복을 꿈꾸는 이곳 사람들의 바람처럼 신바람나는 무재해 일터로 그 빛을 더욱 발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성호연기자〉

